

“내 안의 동심이 요구하는 책을 만듭니다”



창작과비평사 어린이팀 신수진 차장의 주된 관심사는 마이너리티이다.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관심이 많고, 소망이 있다면 국제 건달이 되어 세계 이곳저곳을 돌아다녀 보는 것이다. 교사가 되어 진도를 빨리 끝내고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는 자상한 선생님이 되고자 했던, 그가 말하는 어린이책 편집자로 살아간다는 것, 그 즐거움과 어려움은 앞서거나 뒤서거나 우열을 가릴 수 없지만 그래도 즐거움 쪽에 무게중심이 실린다.

“어린이책 편집자의 덕목은 잡식성, 편견 없는 시각,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이 아닐까 싶어요. 전 ‘내 안의 동심’이 요구하는 책을 만들고 있고, 지금 아이들과의 겹은 다양한 방식으로 메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게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없을지 모르지만, 좋은 글을 책으로 만들어내는 능력과는 별개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이 작업한 책 중에 애착이 가는 책을 굳이 고르라고 한다면 먼저 《고래는 왜 바다로 갔을까》가 떠오른다. 이 책을 읽고 마지막 페이지에 자신이 썼던 ‘멸종 위기에 처한 귀신 고래가 보낸 편지’를 읽고 아이들이 답변을 보내주었을 때의 즐거운 기억 덕분이다.

“어린이책이 돈이 된다고들 해서 뛰어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어린이책은 돈이 그리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차리리 돈 벌려면 다른 일을 하는 게 낫지 왜 이 어려운 책 만드는 일을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작고 사소한 정보를 담고 있는 책처럼 보일지 모르는 책을 읽고도 어린이가 커서 생활을 하게 될 때 어떻게 작용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어린이책을 만드는 분들이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엄마들이나 책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고 책을 검토하면 아이들에게 권할 수 있는지 파악이 될 텐데 너무 쉽게 다른 사람들의 사고나 판단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신수진 차장의 바람은 책이라는 고루한 매체를 제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단선적인 사고에 빠지기 쉬운 아이들에게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고 행간에서 고급한 즐거움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최근 발간된 <재미있다! 우리 고전> 시리즈는 여러 판본을 검토한 후 원전의 뜻과 느낌을 그대로 살려 서술하고 책 뒤에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읽는 작품 해설’ 꼭지를 두어 집필 과정과 우리 고전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우리 고전의 세계로 아이들을 들어가게 하고자 했어요. 또 오는 6월에는 《창비어린이》라는 아동문학 비평지 창간호가 나옵니다. 어린이와 어린이 문화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좋은 잡지가 될 거라고 봅니다.”

현재 그는 SBS 라디오의 홍서범, 방은희가 진행하는 <홍방불패>에서 일요일마다 ‘동화 읽어주는 여자’로 변신(?)해 어린이책 소개를 하고 있다. 책이니까 무조건 좋다가 아니고 아이들이 ‘즐거운 책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사명감을 안고. ******

취재 양선희기자 | 사진 박신우기자